

‘청풍명계’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으로 수입개방 파고 넘는다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연정리에 위치한 사철농장 전경



▲이준동 사장

친환경 양계산물 생산시대 개막

양계산물 안전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최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장이 증가하고 있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2006년 9월 26일 개정되어 금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신청이 늘어났고,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이 조건을 갖춘 농장에 대해 지난 5월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서를 발부하기 시작하였다.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하면 전 사육과정에서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육조건,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가축분뇨 처리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닭고기, 계란에 대한 항생제 잔류 및 동물 복지 활동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어 무항생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다.

무항생제 인증농장 증가추세

지난 4월 22일 법인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충북 바이오축산영농조합(조합장 이준동)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서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충북지역에서는 이미 20여 농장이 무항생제 닭고기 인증을 받았으며, 산란계 농장도 전국적으로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농장이 늘어나면서 양계업계에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충북바이오축산영농조합(이준동 외 6명)은 지난 2004년 법인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에 뛰어들었다. 브랜드 이름을 충북의 이미지에 맞게 '청풍명계'로 짓고 직원 및

조합원들과 힘을 모아 무항생제 닭고기의 홍보와 정착에 힘을 기울였다.

새로운 발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컸지만 현재는 연간 500만수를 생산할 정도로 규모화가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25억원의 매출액에 이어 금년에는 100~120억의 매출을 목표로 전국망을 넓혀가고 있다. '청풍명계'가 공급되는 곳만 해도 학교급식을 하는 600군대의 학교는 물론 뉴코아, 까르푸 등 대형 매장에 입점하면서 이제는 전 국민이 인식할 정도의 닭고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증평에 자체 닭 가공공장까지 건립중에 있어 친환경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양질의 닭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인식전환의 고비를 넘기며

이준동 사장은 1992년 육계업과 인연을 맺었으며, 농장 경영과 양계협회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의 축산이 친환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 요구가 바뀌어 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던 식대로 안주하는 것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농가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지론을 평소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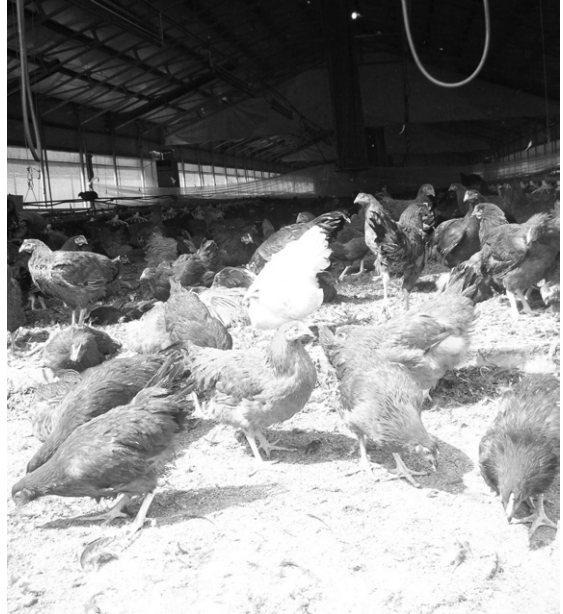
사철농장은 양계 실험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면역증강 물질(키토산 등)을 사용해 보았을 정도이다. 이준동 사장은 그 결과 얻은 결론이 무항생제 분야는 가능성이 충분하며 도전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마침내 지난 2003년 무항생제



▲무항생제 1호 농장인증서 수여(좌부터 부인 박준희 여사, 이준동 사장, 이기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장, 안만영 품질관리과장)



▲무항생제 닭 생산에 성공한 이준동 사장



▲무항생제 기법으로 사육되는 '청풍명계' 사육현장

닭고기 생산 기틀을 만들고 충북바이오축산영농조합(2004년 법인등록)을 결성하면서 본격적인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준동 사장이 친환경사업에 참여하자 주위 사람들이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심중팔구 우려섞인 말을 들었지만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서로 믿고 이준동 사장을 따라준 결과 현재의 '청풍명계'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금 압박을 받을 때에는 집과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황도 있었으며, 2006년에는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가장 큰 시련기를 맞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준동 사장의 끊임없는 노력과 관(군청 및 농림부 등)의 이해와 설득 끝에 지난해 9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희망을 찾고 더욱 일에 매진 할 수 있게 되었다.

수평계열화로 농가 살린다

충북 청원군 강내면에 위치한 사철농장은 5개 동(800평)에 4만수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1동에는 육계가 나머지 4동에는 토종닭이 사육되고 있다. 사철농장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은 항생제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대신 한약제와 마늘 등을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산원가도 일반 닭보다 2배 가까이 더 든다. 하지만 이준동 사장은 1,000원이 비싸더라도 항생제가 없는 닭을 소비자들께서 찾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무항생제 농장들은 충북바이오축산영농조합에서 만든 친환경 닭고기 사육프로그램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지침을 따르지 않고서는 '청풍명계'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육된 닭들은 환절기 때 IB(전염성 기관지염) 정도만 약간씩 문제가 될 뿐

3년동안 감보로 및 ND에 의한 피해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이는 이준동 사장의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론이다.

이준동 사장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수평계열화이다.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수직계열화는 FTA 등이 체결되면서 생산농가의 피해만을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즉, 관세가 철폐되고 외국산 닭고기가 싸게 들어올 때 농가를 보호하는 계열사들이 과연 뗏이 될 것인가를 반문한다. 계열사들은 국내닭을 이용하지 않고 외국산 닭을 이용하면서 결국 농가들은 설 자리를 잃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청풍명계’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중간 유통상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닭보다 15% 정도의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들은 좋은 닭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현재 kg당 1,700원의 고정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진다.

한미 FTA 등 이제 가격경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찾는 닭고기 생산만이 살아갈 수 있으며, 친환경 축산이야말로 환경도 살리고 국민의 건강도 챙기며, 농가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임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수평계열화를 통해 육계기반을 튼튼히 만들어가야 하며, 이러한 사업에 충북바이오축산영농조합이 이정표를 제시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젊은 사람들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준동 사장은 ‘청풍명계’ 1마리를 사면 그만큼 환경을 살리는 것이라고 어디를 가든지 홍보하고 있다. 이는 무항생제 닭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순환농업 즉 자연에서 생산된 약초 등을 먹여 면역을 증강시키며 이것이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 환경



▲무항생제 사육방법으로 생산되는 ‘청풍명계’ 및 사료원료와 각종 부산물

을 살리는 작용을 하는 원리이다.

이준동 사장은 양계협회 청주지부장 11년과, 현재까지 양계협회 충북도지회장을 맡아 양계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농가의 소득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 기술 보급에 가일층 힘을 쏟고 있다.

금년 3월에는 정부로부터 양계부문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될 정도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실패를 풀듯이 조심스럽게 때로는 낯시 비늘없이 낯시대를 드리우고 기다리는 마음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이준동 사장은 앞으로 ‘양계는 젊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스스로 변해가는 양계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그 대안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

